

May 21. 2017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24장 (왕 되신 주)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540장 (통 219)
Prayer 기 도	성기현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시편128:1-6
Choir 성가대찬양	285장(주의 말씀 받은 그 날)
Sermon 말 씀	김원기 목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 Prayer 기 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30
☐ 성숙한 오후	

금요 기 도 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복음의 제사장 ☐ 본문: 롬15:14-21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구역장 : 최영애권사	인도 : 성기현장로
☐ 감자 - 구역장 : 김옥련권사	인도 : 사라톨집사
☐ 무 - 구역장 : 김봉재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새가족부	인도 : 김원기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 2017년 표어 “예수님처럼 말씀대로”(요15:10)
 - 이달에 읽을 성경은 사사기 입니다.
 - 2017년 5월 행사 : 가정의 달
21일 : 성숙한오후(9), 부부의 날.
28일 : 성숙한오후(10), 생일축하, 교역자월례회.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성숙한 오후 매주 주일 오후(1:30 pm)
#매주 토요일 커피브레이크(6:00 am)
#토요새벽기도: 5월27일 장정님 6월3일 성승록권사 김봉재권사 6월10일 #2017년 성도의 삶 - 말씀의 부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룹시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합니다.
- 말씀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합니다.
 - 교우동정 - 황창원 전도사 황동균 집사 모국방문(4월22일)
이전화 권사 병가료중, 한경완권사님 자녀집
-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전에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 | |
|-------------------|------------------|
| ☐ 기도 : 1부- 합심기도 | •2부- 조홍진장로 |
|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 •2부- 황동균집사 |
|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

교회를 섬기시는 분

- | | |
|-----------------------|----------------------|
| ☐ 교육목사 : Ariel Flores | ☐ 시무장로 : 김경식 성기현 조홍진 |
| ☐ 전 도 사 : 황창원 | ☐ 협동장로 : 이화정 |
| ☐ 음향간사 : 장정관 | |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선교헌금 : \$
주일헌금 : \$	EM헌금 : \$
감사헌금 : \$	
지난주일 합계 : \$	

룻기1:15-22 / 머니 너무 보고 싶다.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에 의해 만들어져 간다. 나쁜 선택이 나쁜 미래를 만들고, 올바른 선택이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만든다. 어떤 선택이든 선택은 씨앗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진다.

첫째, 룻은 '좁은 길'을 선택했다.(16)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길을 택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16).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길은 고생의 길이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족속의 여인이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선민사상과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한 폐쇄적인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율법에서,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신23:3-6)는 저주를 받은 민족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어떤 책에 의하면 그녀는 모압의 왕족이었다고 한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편한 길이 있었는데 스스로 고생의 좁은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룻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다.

둘째, 룻은 '사랑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사랑한' 까닭이다. **17절** 말씀이 이런 그녀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다."** 이는 시어머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잘 사는 길보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고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13:1~3)고 했다. 무엇이든 사랑 안에서 의미가 있고, 유익하다는 뜻이다. 그녀는 이 비밀을 알았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의 길을 택한 것이다.

셋째,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16).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기 민족도, 자기가 섬기던 신도 버리겠다는 각오이자, 신앙고백이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이것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와 같이 되겠다는 결심이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모든 것이 곧 효(孝)다. 효란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생을 감수하며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함께 하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까지 포기하고 상대방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룻이 보여준 효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3)고 약속하였다. 효부 룻은 이 축복의 증인이고, 주인공이 되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북미주 개혁장로교회(CRC)
사랑의동산교회
Dong San of Love C.R.C.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